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에 관한 연구

지 은 주(인하대 석사) · 양 성 은(인하대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청소년 권리행사, 자아개념, 성별, 연령에 대해 고찰하는데 있다. 자료수집을 위해 수도권의 중, 고등학교 4곳의 청소년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56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중학교 2학년 청소년 279명과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290명이다. 청소년의 권리행사를 측정하는 척도는 이재연과 강성희(1997)가 개발한 아동의 권리인식 척도 중 “권리의 보유 정도 인식” 영역을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는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보호, 양육, 발달 및 참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자아개념 측정을 위해 고진영(2004)이 개발한 중, 고등학생 자아개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신체외모, 운동능력, 친구관계, 부모관계, 정서적 안정, 정직신뢰가치, 수학, 언어 일반교과 등 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Gresham과 Elliott(1990)의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를 문성원(1997)이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협동성, 주장성, 공감, 자기통제 등 4개의 하위요인과 3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α 계수, t검증, Pearson 상관관계,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권리를 더 높게 행사하고 있으며, 부모관계 자아와 일반교과 자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사회적 기술 중 공감 기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보다 자아개념 중 운동능력 자아, 정서적 안정 자아, 수학적 자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기술 중 자기통제기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권리행사, 자아개념, 사회적 기술은 유의한 상관이 있다. 청소년의 권리 행사는 친구관계 자아, 부모관계 자아, 정서적 안정 자아 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기술의 하위요인인 협동성, 주장성, 공감 기술, 자기통제 기술과도 각각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권리행사와 자아개념이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행사가 높을수록 협동성, 주장성, 공감 기술, 자기통제 기술이 높으며, 운동능력 자아, 친구관계 자아, 정직신뢰가치 자아, 일반교과 자아가 긍정적일수록 협동성이 높고, 신체외모 자아, 운동능력 자아, 친구관계 자아, 정직신뢰가치 자아가 긍정적일수록 주장성이 높았다. 또한 운동능력 자아, 친구관계 자아, 정직신뢰가치 자아가 긍정적일수록 공감 기술이 높으며, 부모관계 자아, 정직신뢰가치 자아, 정서적 안정 자아, 수학적 자아, 일반교과 자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통제 기술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적절한 권리행사와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낮은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올바른 행사와 청소년 시기에 형성해야 할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획득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